

김현진. 십 년만 부탁드립니다. (서울, 다른박스, 2008)

전시로부터 책까지의 여정,

그 중첩된 시간과 이야기의 아카이브를 만나다.

이 책은 이주요의 작품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여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이야기로부터 이 작품들이 2007 년 5 월 갤러리 27 에서 열린 전시 “십 년만 부탁드립니다”를 통해 위탁되는 과정까지를 기록하면서 완성되었다. 작가의 오브제들이 마치 하나의 개별 존재들처럼 여행하여 현재의 십 년간 정착을 이루는 이야기들을 담아낸 이 책은 작가 이주요가 지난 시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장을 여는 과정을 준비하는 작업적 전환점에 탄생하고 있다.

“십 년만 부탁드립니다” 전시는 최근 여러 가지 계기로부터 자연스럽게 귀결지어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 암스테르담에서 서울로 이어진 작가의 여정과 몇몇 전시 후에 보관할 장소를 못 찾은 작업들의 불확실한 여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일종의 즉흥적인 계획이었으나, 이것은 정처 없는 유랑에 좀 더 계획된, 그리고 적절히 고려된 휴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써 구체화 되어갔다. 결국, 작가는 전시를 통해 보여진 작업들, 즉 드로잉, 설치 작품, 오브제 등을 원하는 지인들과 관객들에게 십 년간 위탁하기로 한다.

위탁의 과정을 제외하고 보면, 갤러리 27 에서 펼쳐진 전시적 풍경은 몇 해 전 암스테르담의 겨울, 밤을 지새우며 오갔던 작가와 나 사이의 대화와 그 전시적 상상 속에 이미 오래 전에 그려졌었다. 그것은 지난 십 년간의 오브제들을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공간적 점유를 통해 한 공간에 펼치고자 했던 아이디어였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전시의 과정 속에서 작가 이주요의 개개의 오브제들이 지닌 미적 특성들 – 즉, 낯설고 연약하지만 섬세하고 유머 넘치는 디테일 – 뿐 아니라 작업을 감상하는 전체 공간의 리듬까지 고려해보고자 했고, 이를 통해 개별 오브제들과 그들의 군집이 특유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게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전시는 작가와 내가 오래 전에 이미 만들어진 기획을 우연적 계기를 통해 성취할 수 있었던 하나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작업이 되어갔다.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242.6343 / 212.242.6484
Seoul 270 Yonji-Dong,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08.5050
www.doosangallery.com



한편, 이 전시는 단순히 과거의 보따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게 새로운 작업의 계기이자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전시 설치의 과정 중에 다섯 개의 카트 속에 포개져 있던 시간을 다시 방문해야 했고, 그 와중에 잊고 있던 많은 작업을 재발견하기도 했다. 작품을 위탁하기 위해 지난 전시들의 사진 기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새로이 방문하는 아카이빙 과정을 진행했고, 다음 십년간 작업을 맡아줄 지인들에게 각각 작업에 얹힌 이야기를 독백 형식으로 써 내려간 후, 그 에피소드의 일부를 이 책 안에 담는 작업을 전개했다.

이주요의 작업들은 지난 세월 동안 느리게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지만, 동시에 매우 강력하게 집약된 상황과 사건, 이야기들의 중첩을 보여준다. 작품을 위탁 받은 사람들은 작업을 매개로 작지만 매우 특수한 서사들을 소유하게 되며, 책에 수록된 작가의 손 글씨 기록은 그러한 이야기의 증들을 책 페이지를 따라 한 권 한 권 들추어내면서 펼쳐 보이고 있다. 글 짧지 않은 이야기들을 따라가면 어느덧 우리는 이주요의 작품들이 왜 그러한 모습을 띠는 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혹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표류해 왔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어느덧 우리가 이 세계의 주변화 된 영역이나, 삶 속의 관계, 죽음 혹은 사라짐, 유예된 시간 등의 문제에 대한 간접화법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작가가 자신의 과거를 재차 집요하게 분류, 기록,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고 있다. 즉, 언제 소멸하지 모르는 유약한 오브제들의 운명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물리적 존립 이상으로 작업의 운명을 연장한다. 또한, 자신의 물적 작품을 매개로 이주요는 작가적 서사를 전파하고 특별한 인간적 접촉을 위탁과정을 통해 촉발하며, 다시금 그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비로소 비가시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교류의 순간을 구현해내고 있다. 결국, 이 책을 통해 물리적 존재함의 한계와 예정된 사라짐으로부터의 공허를 필사(筆寫)뿐 아니라 구전(口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이야기의 힘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다.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242.6343 / 212.242.6484
Seoul 270 Yonji-Dong,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08.5050
www.doosangallery.com

